

주권자의 명령이다

모든 공직자는 청와대 지시를 거부하라

이대로 지켜보지 않는다... 11월 30일(수) 시민불복종의 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촛불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56년 전 4월 19일, 이 자리에 모여 독재자를 끌어내렸고, 29년 전 6월, 또 한번 모여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함께 민주공화국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부터 재벌과의 정경유착까지. 모든 곳에서 원칙이 무너졌다. 대체 이 나라에 민주는 있는지, 총체적으로 부서지고 있는 나라 꼴에 비판을 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로서 민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200만 촛불이 되어 이곳 5차 범국민대회에 모였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농락당한 민주를 다시 살리는 것은 주권자의 책임이고 권리다.

그만하면 됐다고?

보수언론은 “그만하면 됐다”며 이제 자신들이 정치권·검찰과 판을 마무리 하겠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춤추는 검찰 칼끝을 지켜보자고, 국회 탄핵에

박근혜 퇴진을 맡겨두자고 이 위대한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부역자 1호였던 검찰이 우리가 바라는 박근혜 퇴진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결국 권력 편이고 자기 조직 보위의 귀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우리는 공범 여당과 행정부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둔 무능 야당에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여당 일부와 야당이 탄핵에 나섰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집권을 위한 정치놀음만 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친일 부역자가 해방 후 독립운동가를 처벌했던 일을, 4·19 혁명 성과를 군부 쿠데타가 차지했던 비극을, 그리고 6·10 민주항쟁 후 주권자가 사라진 무대에서 지배자들이 다시 주인공 행세를 했던 희극을.

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해체하라!

우리는 민중을 개돼지라 부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권자가 되

는 나라를 세우려 모였다.

우리 중 누군가는 통장을 스쳐가는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욕설을 견디다 이 자리에 왔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일감을 따기 위해 오늘도 갑질을 견디다 이 자리로 왔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잠 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공부하지만 흡수자가 금수저를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다 이 자리로 왔다.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모욕과 굴종이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은 대통령의 퇴진 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세운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길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5대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는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권자의 명령 1호

그 시작으로 오늘 여기서 주권자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자.

“모든 공직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청와대 범죄 집단의 지시를 거부하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오면 바로 구속될 사람이나 다름없다. 공직자는 범죄자 박근혜의 국정 통치를 거부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다. 범죄자 박근혜가 아직도 호령하는 체제를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터를 멈추고, 농민은 일손을 놓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은 강의실을 박차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체제를 멈추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1월 30일 수요일을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박근혜, 보수언론, 재벌은 한 목소리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아우성 치겠지만, 우리는 그 아우성을 주권자의 새 나라, 굴종 대신 평등과 자유가 오는 희망의 종소리로 들을 것이다.●



이재용 구속 없인 또 털려

상습적 헌정 유린, 이번엔 꼭 처벌해야



삼성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흑이 아니다.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렇다. 이재용 8조원 이득, 국민 6천억 원 손해, 최순실 35억 원 수입.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 합병도 따지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8.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액수로는

시가 20조원이 넘는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지주를 다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식이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이재용이 공짜로 주식 가치를 늘리면 다른 누군가는 주식 가치를 잃는다. 누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연금이다. 지금 같은 구조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정권 실세에게 돈 몇 푼 찢러주면 이재용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 보험가입자가 낸 돈이 자산이다. 이재용이 이진희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고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자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넷 중 하나는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해 왔다. 이번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헌정 유린도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삼성은 또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터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

* 앞선 두 차례 유인물(12일, 19일 촛불)에서 삼성의 상습적 헌정 유린 역사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앞선 글들은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www.pssp.org)'에서 볼 수 있다.

부역자 1호 검찰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나?

친일 부역자가 검경으로 독립운동가 처벌했던 역사 잊지 말아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검찰이 정국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이번 주에만 삼성, 국민연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산 엘시티 게이트를 수사하며 여야 대선후보를 긴장시키고 있기도 하다. 며칠 전까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흘리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청와대를 협박하기도 한다. 검찰 행태만 보면 청와대, 재벌, 여야 대선후보까지 검찰 손아귀에 있

는 것 같다. 순실천하가 눈 깜짝할 사이 검찰천하가 됐다.

그러나 박근혜의 죄악사를 정리하자면 부역자 1호는 정치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4년 간 박근혜의 방망이 역할에 충실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제대로 결론 맺지 못했고, 2014년 말에 논란이 된 정윤희 국정개입 사건도 박근혜의 편에서 사건을 폭로한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의 추악한 과거는 덮어두고 박근혜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방 후 친일 부역자들이 애국자로 둔갑해 친일 청산이 아니라 독립 운동 청산을 했던 게 우리의 역사다. 예로 1950년 부역자처벌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 김창룡은 만주에서 밀정으로 활약하며 독립군조직을 색출하던 자였다. 그는 김구를 죽인 안두희의 배후였고, 독립운동가들을 군에서 색출해 갖가지 조작으로 죽였다. 과연 박근혜 부역자 검찰과 해방 후 친일 부역자 검찰이 얼마나 크게 다를까?

권력 잃은 대통령을 두드리는 검찰

의 방망이는 새로운 권력을 만나면 촛불을 때려잡을 것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성향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적의를 드러낸다. 검찰의 몽둥이는 언제나 그들의 적의에 따랐다. 검찰은 수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에게 요구할 건 무엇보다 부역자로서 스스로를 먼저 처벌하라는 비판이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 준 재벌과 권력자에 대한 태도부터 변화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박근혜 체제를 바꾸기 위한 특별 페이지입니다. 비선의 비선,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헤치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수 언론의 주요 기사와 사설에 관한 논평을 매일 발행합니다.



www.pssp.org

사회진보연대

검색



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주소 [03984]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Tel 02-778-4001, 4002 FAX 02-778-4006
후원계좌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섭)
www.pssp.org | pssp4001@gmail.com